광주, 문화인프라 최하위… 쑥스러운 '문화수도'

10만명당 문화시설수 3.7개 전국 14위… 전남은 8.4개 3위

광주시의 인구 10만명 당 문화시설수가 3.7개로 전국 16개 지자체 가운데 14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8.4개로 3번째 많은 곳에 꼽혔다.

이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박혜자 의원(광주 서구갑)이 15일 전국 지자체별 문화기반시설 현황(1월1일 기준)을 분석한 결과다. 분석대상 문화기반시설은 도서관·박물관·미술관·공연시설·문화원 등이다.

분석결과 인구 10만명 당 문화기반시설이 가장 많은 곳은 제주로 21.2개이고, 그 다음이 강원(11.3개), 전남(8.4개), 충남(7.6개), 충북(7.4개) 순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울산으로 3.1개이고, 부산(3.3개), 광주(3.7개), 인천(3.8개), 대구(3.8개) 순으로 나타나 광역시 지역의 문화시설이 전반적으로 적었다.

기초단체 가운데 인구 10만명 당 문화기반시설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 종로구로 95.6개이고, 다음이 제주 서귀포시(36.9개), 서울 중구(36.2개) 순이었다.

기초자치단체 1곳당 문화기반시설의 경우 광주는 10.8개로 인천과 더불어 공동 6위, 전남은 7.3개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가장 많은 곳은 제주도(61.5개)였으며 서울(22.6개), 경기(15.9개)가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울산(7.2개)이었다.

박혜자 의원은 "지자체별 문화기반시설 편차는 결국 국민들의 문화접근성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가 불균형 해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도서관(17개), 박물관(5개), 미술관(7개), 공연시설(20개), 문화원(5개) 등 모두 54개 문화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전남에는 도서관(59개), 박물관(37개), 미술관(18개), 공연시설(25개), 문화원(22개) 등 총 161개 문화시설이 있다.

전국적으로는 도서관 828개, 박물관 691개, 미술관 179개, 공연시설 826개, 문화원 228개 등 총 2752개 문화기반시설이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자치단체 인구 10만명당 문화시설 수

광역 자치단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 시설	문화원	합계	10만명당 문화시설수
제주	21	55	18	27	2	123	21.2
강원	47	69	10	30	18	174	11.3
전남	**59**	**37**	**18**	**25**	**22**	**161**	**8.4**
충남	51	43	8	37	16	155	7.6
충북	36	41	7	20	12	116	7.4
경북	62	60	14	33	23	192	7.1
전북	49	33	3	17	14	116	6.2
서울	116	106	33	285	25	565	5.5
경남	58	51	8	39	20	176	5.3
대전	22	16	5	23	5	71	4.6
경기	184	119	36	122	31	492	4.1
대구	27	13	3	45	8	96	3.8
인천	36	22	4	38	8	108	3.8
광주	**17**	**5**	**7**	**20**	**5**	**54**	**3.7**
부산	31	12	5	55	14	117	3.3
울산	12	9	0	10	5	36	3.1

〈박혜자 의원 제공〉

이름뿐인 구례·목포 '관광특구'

전남·전북 4곳 연간 외국인 관광객 2만명도 안돼

전남지역 관광특구인 구례와 목포가 연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름뿐인 관광특구라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혜자(광주 서구 갑) 의원이 15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전국의 관광특구 28개소를 조사한 결과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관광특구가 다수였다.

또한,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 명을 넘지 못한 곳은 목포와 구례를 포함해 전북 무주 구천동, 정읍 내장산 등 9곳이나 됐다.

전남과 전북지역 관광특구 4곳 모두 외국인 관광객 수는 최근 연간 1만2000~1만8000명 정도에 그쳐 관광특구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였다.

특히 관광특구의 경우 임야·농지·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에도 구례는 90% 이상이 관광활동과 관련이 없는 토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은 20개소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보통교부세 산출 계산식에 관광특구 면적이 포함됨에 따라 강원도는 매년 약 211억원, 부산은 87억원, 전남은 58억원, 충북은 38억원 등 매년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며 "지자체들이 특구지정에 따른 국고 보조금 지원 등 직접적 혜택을 보고 있는 만큼 지자체가 투자를 하도록 문체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조마조마 '초보 라이더' 15일 광주시 서구 서창동 영산강변의 자전거 교육장에서 '초보 라이더'들이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고 있다. 자전거교육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동안 진행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DJ 모교 '목포상고' 되살아난다

전남제일고, 이전 뒤 '목상고'로 교명 변경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배출하는 등 93년 전통을 자랑하는 전남제일고가 '목상(木商)고등학교'로 교명 재변경을 추진한다.

15일 전남제일고에 따르면 지난 2001년 목포상업고등학교에서 전남제일고로 바꾼 교명을 다시 목상고로 변경하는 안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 3월 1일부터 목상고로 전환한다.

교명 변경은 대통령을 배출한 학교 전통을 이어가자는 취지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했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곽종월 교장은 "목상의 상(商)은 '장사 상' 외에도 '으뜸'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며 "상업고가 아닌 인문계 으뜸 학교가 되자는 취지로 교명을 목상고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명 변경과 함께 전남제일고는 이날 학교를 용해동에서 신도심인 옥암지구로 옮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설 건의서를 전남도교육청에 제출했다.

학교 측은 건의서에서 "건물이 낡고 옥암지구 학생 통행 불편, 학생 수 감소, 옥암지구 학교신설 요구 등 민원이 많다"면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문회 의견을 수렴한 결과 93%가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설 계획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201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옥암지구로 옮길 예정이다. 현 학교 건물과 부지는 영재교육을 위한 전남도교육청 사업소로 활용할 예정이다.

목포상고는 지난 1920년 개교 이후 2만600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유명무실 수산물 이력제… 참여율 6.9% 불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고로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부터 판매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관리하는 수산물 이력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 의원은 15일 세종시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투명한 생산과정을 통해 국내산 수산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수산물이력제가 관련예산부족과 복잡한 등록절차 등으로 전체대상업체의 6.9%만 참여하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개선방안마련을 요구했다.

수산물이력제는 국내산수산물과 가공수산물을 생산부터 판매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관리해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대국민신뢰를 높이는 사업으로 현재 가장 많이 소비되는 20개의 품목을 지정하여 관리 중이다. 그러나 의무제가 아닌 자율참여사업이다 보니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대상업체 6만4160곳 중 4427개 업체가 가입해 6.9%만 가입해 있다.

대규모양식장의 경우, 수산물 이력제 시행을 위해서는 연간 3000만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예산 지원이 적어 사실상 생산자의 의지에 기대하다 보니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일제잔재' 동양척식회사 명의 토지 아직도 광주·전남에 35필지 있다

국가 소유지만 서류상으로는 아직도 일제시대 수탈기관이었던 일본의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의로 돼 있는 토지와 건물이 광주와 전남에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창원시 성산) 의원이 15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말 현재 부동산 등기부 기준으로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 토지는 325필지, 45만5000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절반 이상인 176필지 28만5000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남 27필지 9015㎡, 충남 23필지 3만8734㎡, 부산 21필지 1만4913㎡ 등의 순이었다. 광주는 8필지에 1만745㎡의 토지가 부동산 등기부에 남아있다. 강 의원은 호남에 등기기록이 많은 것은 동양척식주식회사가 곡창지대인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건물의 경우 등기부상으로 14개동 1429㎡가 동양척식회사 소유였으며, 대구에 가장 많은 5개동이 있었다. 이어 광주 4개동(378㎡), 울산 3개동(287㎡) 순이었다. /최권일기자 cki@

전국 지자체 발주계약 모든 과정 공개

부정부패 차단… 내년 2월부터

내년 2월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의 전 과정이 공개된다. 시·군·구에서 광역 시·도까지 모든 지자체가 대상이다. 부정부패를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다.

안전행정부는 지방계약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이런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앞으로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발주할 때 계획에서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변경, 대가지급, 관리·감독·검사, 하도급대가 지급 상황, 근로자 노무비 지급 상황 등 전 과정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5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지금은 계약 발주 계획과 1000만원 이상 수의 계약 현황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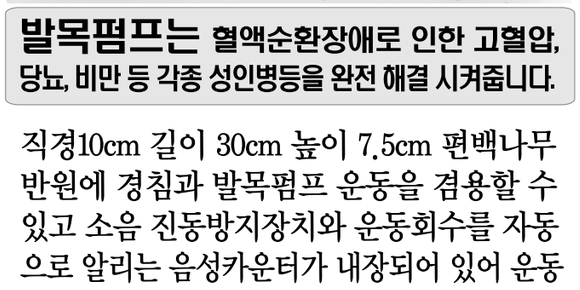
개정안은 또 입찰 참가업체에 향응·뇌물·담합·청탁·알선 등을 금지하는 청렴 서약서 제출 의무화를 명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비만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KT 중앙초교 계림동 금남로 대한생명 구.한미쇼핑 동부소방서 주차장 입구 고객 주차장 북경당 한의원
진료문의 062)227-7575
진/료/시/간
평 일 : 오전9시~오전7시
토요일 : 오전9시~오전4시
일요일휴진,공휴일은 오전진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30-증-2696호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한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글리코엔 (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o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상승 억제!!
01 식후혈당상승억제에도움을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0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입니다.
03 (주)유한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DAUM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상담전화 1899-3975 H.P 010-3598-7080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최대 ~80%
금리는 낮게 최저 4.3%~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궁동본점 | 금호지점 | 풍암지점

편백경침겸용 발목펌프


발목펌프는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고혈압, 당뇨, 비만 등 각종 성인병등을 완전 해결 시켜줍니다.
직경10cm 길이 30cm 높이 7.5cm 편백나무 반원에 경침과 발목펌프 운동을 겸용할 수 있고 소음 진동방지장치와 운동회수를 자동으로 알리는 음성카운터가 내장되어 있어 운동하기 편리하며 취침 시는 경침으로 이용하며 평생 동안 건강을 지켜주는 운동효과가 탁월한 편백경침겸용 발목펌프는 당신의 건강을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특허등록 제30-0630153 발목펌프★
» 편백 경침 겸용 [음성카운터](아파트용) 60,000원
» 편백 경침 겸용 [음성카운터](주택용) 50,000원
» 편백 경침 겸용 발목펌프(아파트용) 40,000원
» 편백 경침 겸용 발목펌프(주택용) 30,000원
제일건강 문의전화 : 010-7510-2000
광주 광역시 남구 진월동 258-1